

전국 저축은행, 상반기 3804억 적자... 하반기도 '먹구름'

작년동기비 손실규모 2839억 확대
대출영업 부진에 대손충당금 늘어
상상인그룹 계열사만 840억 적자
페퍼·바로저축銀 합산 1000억대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당초 올 하반기 반등을 관측했지만 시기가 미뤄질 것이라 분석이다. 여신축소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합산 순손실은 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65억원) 대비 손실규모가 2839억원 확대됐다. 대출영업이 부진했던 데다 연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962억원 증가하면서 손실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의 여신잔액과 수신잔액은 각각 3.1%, 2.8%씩 감소했다.

상반기 업계에서 가장 큰 적자를 기



저축은행이 올 상반기에도 적자를 기록하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지 못했다. /뉴시스

록한 곳은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각 550억원, 290억원씩 순손실을 기록해 총 840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전체 저축은행 손실액의 22.08%를 차지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손실 배경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이 오르면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상상인저

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4%다.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14.0%로 연간 3.35%포인트(p) 상승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영업환경도 녹록치 않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IBK저축은행이 손실규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순손실은 372억원, IBK저축은행은 3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밖에 페퍼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

행이 각각 643억원, 40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두 저축은행의 합산 순손실만 1000억원 이상이다. 올 상반기 저축은행 79곳 중 18곳이 순손실 100억원을 초과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며 "업계 유동성 비율이 평균 200%를 넘어선 차주의 예금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했다.

자산순위 상위 저축은행 5곳(SBI·OK·웰컴·한국투자·에쿠온저축은행)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603억원이다. 전년 동기(580억원) 대비 3.96% 증가했다. 에쿠온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3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56억원, 83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순이익은 감소했다. 상반기 OK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3억원이다. 전년

동기(535억원) 대비 86.3% 쪼그라들었다. 1분기 149억원의 흑자를 달성했지만 2분기에 7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웰컴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3억원으로 35.7% 줄었다.

업계에선 저축은행의 연내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공격적인 영업을 지양하면서 리스크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우선순위는 부동산 PF발 부실채권 매각이다.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면 그동안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권의 유동성비율은 232%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100%) 대비 132%p 높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5%로 법정기준 대비 13.54%p 초과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안정성 종합지표인 BIS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현시점의 위기대응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상상인저축 등 4곳 자본조달계획 제출 요구

BIS비율, 권고치 아래로 떨어져
금융당국 유상증자 계획 등 접수

금융당국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 자본비율이 미달된 저축은행에 자본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 4곳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실적 결산 결과 상상인·상상인플러스,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 4곳의 BIS비율이 권고치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BIS비율이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다. 기업의 건전성

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0.45%다. 이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9.72%, 라온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이 각각 9.01%, 10.67%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정한 BIS 비율 마지노선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의 경우 7%다. 1조원 이상의 경우 8%를 넘겨야 한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금감원은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 버퍼'를 더해 권고 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아래로 내려가면 비상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곳 모두 권고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자본조달계획안에는 ▲자본확충 방안 ▲유상증자 계획 ▲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이 떨어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자본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하면서 권고치 이상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DL이앤씨,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수주

강남 도곡동 위치, 공사비 4385억
클래식 커튼월 등 최초 적용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아파트 8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4385억원이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지난 7월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에 이어 강남권에서 연이은 성과를 냈다.

DL이앤씨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사업의 단지명을 '아크로 도곡'으로 제안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만의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도곡에 클래식

커튼월과 필라스터·폴로네이드 외관 디자인을 강남 최초로 적용한다. 가든 컬렉션을 통한 단지 내 프리미엄 조경부터 32개소의 하이엔드 커뮤니티 시설, 가구당 2.0대의 100% 확장형 주차 공간 등 특화 설계도 선보인다. 또한 층간소음 저감, 내구성 향상 외벽 페인트 등 DL이앤씨의 차별화된 기술력도 적용한다.

아크로 도곡은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사업이다. 양재천과 매봉산 조망이 가능하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남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강남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형마트는 물론 숙명여중·고와 중대사대부고, 대치중과 같은 풍부한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이달 3.8만 가구 분양...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

청담르엘 149가구 등 서울 2237가구
인천 5116가구, 지방 9301가구 공급

9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만 75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 3538가구) 대비 177%가량 많은 물량이다.

2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3개 단지, 총 3만 7532가구가 조사됐다. 전월(1만 6149가구)과 비교하면 약 23%(2138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8231가구, 지방은 9301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2만 878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공급이 눈길을 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을 재건축해 분상제 아파트로 공급되는 '청담르엘' 149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중앙동 지어지는 '해링턴스퀘어신흥역'이 총 세대수 2212가구(분양 1972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밖에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세대)' 등의 대단지 공급이 눈에 띈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직방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5.2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82.1대 1)이었다.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는 1순위 평균 90.28대 1의 경쟁

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 올렸다. 이어 충남 아산시 '아산배방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5.7대 1),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6.2대 1) 등 단일 공급된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한편 8월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 평균 1순위 경쟁률은 0.9대 1을 나타냈다.

업계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던 사업장에서도 분양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따라서 이달 분양시장은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늘어난 물량만큼 수요자들의 새아파트 관심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단지별 청약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량이 많아질수록 예비청약자들의 선택의 폭은 다양해지고 가격과 입지 경쟁력을 따지는 수요자들의 욕망거리는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하나은행

탄소 배출량 80% ↓
'고그린 플러스' 가입

하나은행이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를 사용해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그린 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

L'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서비스로, 회원사가 지속가능 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는 회원사 참여형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외환 및 수출입 업무에 강점을 가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특송업체를 이용한 수출입 선적서류의 발송이 시중은행 중 가장 활발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